

##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 15. 고백적 증언으로 말하라

김완일 목사 / 1994/ 페이지 수 : 2

성경공부는 강의나 강연이 아니다. 강의나 강연은 지식적인 정보제공이나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서 일반적인 진리나 사실을 전달하는 일이다. 이에 반하여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인도자 자신의 신앙적인 깨달음과 진리에 자신의 신앙적인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숨김없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참된 성경공부는 인도자 자신의 내면적 고백이며 고백적 증언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깨달음과 인격적 변화가 없는 성경공부를 살펴보면 예외없이 인도자 자신을 제3자로 삼고 있거나 참석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공부가 무책임하고 관련성없는 주장으로 전개되는 것은 인도자의 고백적 증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자신의 메시지가 자신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고백적 증언으로 표현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도자 자신의 삶과 깨달음이 아닌 군더더기는 사정없이 잘라내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인도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해 보자.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신앙, 곧 율법적인 신앙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표준을 율법에서 찾고, 그 율법의 잣대로 신앙과 생활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이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도 무방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때, 참석자들은 긴장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그렇든가 하고 생각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서 즐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자신들과는 무관한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문제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고백적 증언으로 표현한다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다. 즉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도덕적인 신앙, 곧 율법적인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율법에 따른 생활을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생활을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메시지의 분위기와 느낌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표현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과 삶이 갖추어진 말을 하면 메시지의 진실성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인도자 자신의 내면세계를 열어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고, 그 어떤 결단도 끌어낼 수 없다.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참석자들이 한가롭게 앉아서 허공에 뜬 말에 귀를 기울일 까닭이 없다.

구체적인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고백적인 증언만이 잠든 영혼을 흔들며 깨울 수 있으며, 무디고 형클어진 생활을 추스려 세워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화의 사용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경험하기에는 너무도 주관적인 체험담을 소재로 삼을 때에는 오히려 참석자들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하여 메시지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성경공부는 인도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참석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백적 증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출처 : 온누리신문